**시선 미상**

서준 (4고)

**등장인물**

연주A: 25세 여성, 친구를 통해 본인이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만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기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초 신고 이후 한 달, 경찰과 국선 변호사 모두 별 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자 연주는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연주B: 불법 촬영을 당했을 당시의 연주.

A: 27세 남성, 연주가 불법 촬영을 당했을 당시 연주의 남자친구. 현재는 연주와 이별한 상태이다.

직원: 30세 남성, 연주가 불법 촬영을 당했을 당시 방문한 모텔의 직원. 연주의 상상 속에서 가해자로 묘사된다.

**S#1. 톰 모텔 카운터, 밤, (연주A의 상상)**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의 톰 모텔 1층.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인포데스크 너머로 컴퓨터 모니터와 앉아 있는 직원의 얼굴이 살짝 보인다. 인포데스크에는 큼지막하게 ‘Tom Motel’이라는 글씨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화면에 프린터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프린트하는 소리가 들린다. 종소리가 들리고 연주A가 문을 열며 들어온다.

직원: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주A: 이연주요.

직원은 컴퓨터 마우스를 몇 번 딸각 거린 후 연주A에게 카드를 넘겨준다. 카드를 받은 연주A는 별 다른 말없이 카운터를 지나친다. 직원은 다시 자리에 앉자 다시 종소리가 들리고 연주B가 문을 열며 들어온다.

직원: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주B: 안녕하세요. 이연주예요.

직원은 좀 전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딸각 거린 후 연주B에게 카드를 건낸다. 자리에 앉으려다 연주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직원의 눈동자. 연주B는 카운터를 지나치고 직원도 자리에 앉는다.

**S#2. 톰 모텔 복도, 밤, (연주의 상상)**

톰 모텔 복도를 걸어가는 연주A의 뒷모습. 404호실 앞에서 멈춘 후, 문을 흘깃 바라본다. 다시 그 다음 방까지 걸어간다. 다음 방의 문에도 똑같이 404호실이라고 적혀 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연주A.

**S#3. 톰 모텔 404호 연주A, 밤, (연주의 상상)**

방 안으로 들어온 연주A는 카드키를 꽂아 넣고 곧장 소파 위로 올라 간다. 천장을 향해 손을 뻗어 구석진 곳을 뒤지는 연주A. 눈알 하나를 꺼내 침대 쪽에 던져 놓는다.

**S#4. 톰 모텔 404호 연주B, 밤, (연주의 상상)**

연주B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 화면의 구도로 보인다. 방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오는 연주.

**S#5. 톰 모텔 404호 연주A, 밤, (연주의 상상)**

침대 끝 쪽에 걸터앉아 TV를 통해 씬 4의 화면을 보고 있는 연주A. TV 아래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USB가 꽂혀 있다. 그 아래, 좀 전에 꺼낸 눈알이 두 동강으로 으깨져 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연주A. 연결음이 울리지만 이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음이 들린다.

핸드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핸드폰 화면 속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연주A.

연주A: 전화 좀 받아라.

연주A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해보지만 발신자의 이름 대신 번호가 써 있다.

연주A: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적막이 흐르는 모텔 방 안, 수화기 너머의 남성이 입을 연다.

A: 응. 오랜만이네.

연주A: 영상은,,, 확인해봤어?

A: 끝까지는 못 보겠더라.

연주A: 어떻게 할 거야? 난 일단 지금 여기,,,

A: (연주의 말을 끊으며) 연주야, 우리 헤어지고 나서 처음 전화하는 거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난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다.

이 일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나선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연주A: 뭐라고?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TV 화면 속 A가 양손에 와인과 케이크를 들고 들어온다. 어느새 연주A의 코 앞까지 걸어 들어온 A.

A: 짜잔.

연주A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A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총성이 울리고 연주의 얼굴에 피가 튄다. 이명이 울린다.

연주A: 쓰레기 새끼.

눈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전화를 끊는 연주A. TV 화면 속 와인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다. 난리법석을 피우는 연주B와 A. 연주A는 화장실에서 한 무더기의 수건 들을 가지고 온다. A의 피와 깨진 와인병에서 흘러나오는 와인이 한데 뒤 섞여 흥건해진 바닥. 연주A는 그 위에 수건들을 덮는다. 덮어 놓은 수건들이 삽시간에 붉게 물든다. 연주A는 협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 든다. 수화음이 몇 차례 울리다 전화가 연결되고 동시에 연주A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직원: 네, 데스크입니다.

연주A는 벨소리가 울리는 침대 쪽을 슬쩍 바라본다.

연주A: 수건 좀 가져다주세요.

직원: 몇 장 드릴까요?

연주A: 많이요.

직원: 그니까 몇 장,,,

직원이 미처 대답하기 전, 연주는 수화기를 내려 놓고 핸드폰을 집어 든다. 핸드폰 화면 속 발신자 ‘변호사님’. 연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전화를 받는다.

변호사: 전화하셨어요?

연주A: 변호사님, 연락이 잘 안되세요.

변호사: 아 예, 죄송합니다. 업무가 바빠서.

연주A: 그냥 진전이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변호사: 하, 일단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정이 안된다니까. 특정이.

연주A: 네.

변호사: 그리고 연주씨,,,

연주A: 네?

변호사: 아닙니다.

연주A: 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변호사님.

변호사: 예, 그,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 침대에 눕는 연주A. 눈을 천천히 깜박인다. 연주A가 완전히 눈을 붙인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주머니 안에 권총을 숨긴 채 문을 살짝 여는 연주A. 문 앞에 수건을 한 가득 안고 있는 직원이 서 있다.

직원: 몇 장 드릴까요?

연주A: 다 주세요.

직원: 뭐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연주A: 그냥,,,

직원: 와인 흘리신 건 아니죠?

연주A: 네?

직원: 아까 애인이 와인 사 들고 들어가더만.

시트에 묻으면 그거 빠는 거 그것도 다 돈이에요.

연주A: 아뇨. 아니예요.

수건을 받고 문을 닫으려는 연주A. 직원이 문을 잡는다.

직원: 내일 체크아웃 하실 때 추가 요금 계산해 주셔야 돼요.

미소를 짓는 직원을 언짢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주A. 문을 닫아 버린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으로 돌아서는 연주A.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다시 문을 연다. 긴 복도를 좌우로 살피지만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 받아온 수건 들을 바닥에 떨구고 죽은 A를 침대 아래로 밀어 넣는다. 바닥을 대충 닦은 뒤 수건 들도 전부 침대 아래로 밀어 넣는다. TV 화면 속 연주B와 A가 침대 위에서 서로에게 케이크를 묻히며 장난을 치고 있다. 연주A도 침대 아래로 들어간다. 천장에서 바라본 방 내부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적이지만 TV에서 흘러나오는 빛만 요란하게 번쩍인다.

**S#6. 톰 모텔 404호 연주A, 아침 (연주의 상상)**

아침이 밝아 온다. 이른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TV는 꺼져 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막간의 정적을 깬다.

침대 아래 숨은 연주의 모습 앞으로 직원의 다리와 청소 카트가 움직인다. 직원은 대걸레로 와인 자국을 지우곤 대뜸 소파 위로 올라 간다. 연주가 눈알을 꺼냈던 천장 모서리를 향해 손을 뻗는 직원. 마치 무언가를 수리하듯 달그락 거리기 시작한다. 연주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직원을 향해 겨눈다. 연주는 서둘러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격발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 소파에서 내려오는 직원. 탄창을 확인하는 연주. 비어 있다. 연주는 급히 탄창 안에 총알을 채워 넣는다. 카트를 끌고 나가는 직원. 침대 밑에서 빠져나오는 연주. 이미 방을 나간 직원. 연주도 방을 나간다.

**S#7. 직원 휴게실, 낮 (연주의 상상)**

‘STAFF ONLY’ 표지판이 붙어 있는 문 앞에 선 연주. 가득 찬 탄창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 간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직원이 보인다. 명찰을 천으로 닦으며 TV를 보고 있다. TV에는 모텔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이 보인다. 인기척을 느낀 직원이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본다. 고개를 내밀며 눈을 찌푸리는 직원.

직원: 404호 손님?

직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연주.

연주: 너 누구야?

직원: 저요? 저는 그냥 여기 직원인데요.

연주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지권을 향해 총을 겨눈다.

연주: 왜 그랬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을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라, 제발.

지권은 두 팔을 엉거주춤 들어 올린다. 지권이 닦고 있던 명찰에 ‘직 원’이라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다. 연주의 얼굴과 총을 미심쩍은 표정으로 번갈아 보는 지권.

직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직원이라니까요?

직원은 천천히 손을 내리곤 가슴팍에 명찰을 단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직원.

직원: (여성의 목소리) 연주씨,

**S#8. 경찰서 사이버 수사계 조사실, 초저녁**

씬 1에서 들렸던 프린터 소리가 들린다. 창백한 형광등 조명이 방 안을 가득 메운다. 파티션 사이의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주를 바라보고 있다.

경찰관: 연주씨!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얼굴을 양손에 파묻은 연주가 얼굴을 든다.

연주: (흠칫 놀라며) 네?

경찰관: 괜찮아요?

프린터 소리가 멈춘다. 경찰관은 프린터에서 꺼낸 종이 들 중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

경찰관: 연주씨가 쓰셨던 진정서입니다. 피진정인이 빈 칸이죠?

이런 경우엔 수사 진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도 별 다른 도움을 드릴 수가,,,

권총을 차고 있는 경찰관이 연주의 등 뒤로 지나간다. 연주의 눈에서 참아 왔던 눈물이 흐른다.

연주: 네. 진전 있으시면 꼭 연락해주세요.

-끝